

수백억 들인 광주 문화시설 콘텐츠·이용자 없어 텅텅

지난 3월 광주영상복합문화관(광주시 동구 서석동)을 운영하는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문화관 내 G시네마가 예술영화전용관에 선정됐다고 홍보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현재 G시네마는 영화진흥위원회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예술영화전용관 운영권을 반납한 상태다. 선정 후 막상 계약할 시점에 이르자, 예술영화 의무 상영일수 등을 맞추지 못할 것을 우려, 자진 반납한 것이다.

영상복합문화관 예술영화 운영권 반납 광엑스포영상관 운영 부진 활용안 시급

광주시가 거액을 투입, 설립한 문화시설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지난 2010년 200억원을 들여 문을 연 복합문화관이 대표적이다. 복합문화관은 '문화콘텐츠에 대한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상품의 전시·홍보 마케팅을 지원, 지역 문화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지어진 공간이지만 운영면에서는 낙제점을 면키 어렵다. 현재 지상 6층 규모의 복합문화관에는 교육시설과 영화관 G시네마, 민자유치한 테마파크 '웨스턴 마카로니', 콘텐츠 홍보홀 등이 들어서 있으며 1년 운영비는 3억원 정도다. 105석을 갖춘 3D영화관 G시네마가 가동된 날은 올들어 6월말까지 단 27일에 그쳤다. 관람 인원 역시 400명에 불과했다.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청춘극장' 하나다. 5층에 위치한 콘텐츠 홍보관 역시 사람들이 발길이 거의 닿지 않고 있다. 지역에서 생산한 문화 콘텐츠 등과 지역업체의 캐릭터 등을 전시해 두고 있지만 문화관 자체를 찾는 이들의 발길이 뜸하다 보니, 이 전시물을 관람하는 이들이 거의 없다. 개관 초창기에는 견학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도 했지만 예산이 줄어들면서 모두 사라졌다. 1층 소공연장과 기획전시실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층 로비에서 '천원의 낭만' 등의 공연이 열리기도 했지만 올해는 그마저도 없는 상태다. 1층 전시실은 간이 파티션 형식으로 구성돼 있어 지역 작가들이 전시를 꺼리고 있다. 인력양성 프

그램을 진행하는 4층 아카데미 정도가 그나마 제대로 돌아가는 공간이다. 이런 상황에서 돌파구로 생각했던 예술영화전용관이었다. 하지만 세세한 규정들을 살피지 않고, 제대로 된 운영 계획도 세우지 않은채 일단 공모를 따내는 데 급급, 정작 사업을 시작도 하기 전에 운영권을 반납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지난 2010년 문을 연 상무시민공원 내 '광엑스포 주제영상관'도 적절한 활용방안을 찾아야한다는 지적이다. 225석 규모의 3D영화관인 광엑스포 주제 영상관(빛분수 등 포함)의 운영비는 연간 3억원 정도로 역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위탁운영을 맡고 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빛고을유소년영화체험전이 있으며 상반기에는 정보문화의 달 행사를 진행하는 데 그쳤다. 진흥원은 애니메이션 전문관, 4D전용관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고려중이지만 낙후된 시설 때문에 투자비가 만만찮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문화계 관계자는 "광주시가 문화공간들을 지을 때 정확한 운영계획이나 콘텐츠 없이 무작정 건물을 짓고 보는 행태는 심각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여름휴가 시작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남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부쩍 늘고 있다. 23일 완도여행센터미널은 청산도와 보길도, 제주도로 가려는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일요일휴업 규제 피하기 '꼼수' 광주 대형마트 3곳 업태변경

일요일 의무휴업을 피하기 위한 대형마트들의 '꼼수'가 논란이 되고 있다. 광주지역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들이 일요일휴업 조례에 따른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잇따라 업태를 변경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마트 진월점이다. 이들은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 영업제한 조례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 4월에 변경등록을 마쳤다. <2면으로 계속>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주시 한미합작투자법인> '갬코' 진실게임

'부실투자' 논란을 빚고 있는 광주시의 '3D컨버팅(입체영상 변환) 분야 한미합작투자사업'이 갈수록 미궁에 빠져들고 있다. 미국 파트너 업체인 K2AM의 기술력 확인이 두 차례 무산됐지만, 광주시는 기술력 테스트를 이유로 계속 시간을 끄는 양상이어서 한미합작투자법인 '갬코'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광주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실 파악에 나섰고, 검찰도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갬코' 사태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市 송금 650만달러 용처 오리무중 美 합작업체 원천기술 확보 못해 검찰수사 착수 실제 밝혀질지 주목

광주시 노회용 문화관광체육 정책실장은 23일 미국 현지 실사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원천기술 확인을 위한 현지기술 테스트 준비에 약 2개월이 소요되고, 기술력 검증을 위해서는 미국 파트너 업체인 K2AM이 70만달러를 투자해야 하는데 독자적으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기술테스트 준비에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앞으로 추가적인 자금 지원 없이 K2AM의 자금 마련 상황을 보면서 대처할 계획이다. 하지만, K2AM이 자금난 때문에 기술테스트를 할 수 없다는 점이 의문이다. 광주시가 합작사업에 필요한 장비구입 등을 위해 지난해 7월까지 5차례에 걸쳐 K2AM에 650만 달러(70억3000만원)를 송금했기 때문이다. 광주시가 송금한 돈의 10% 정도만 기술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도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 부분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K2AM에 투자한 광주시의 650만

광신대학교 신입생모집 2013학년도 학부 수시 1차 9월 11일 2012학년도 후기 대학원 8월 20일 입학 문의 062)605-1114 광신대학교



한 여름 8월 평균기온 22.3℃ 겨울에는 눈축제 (삿포로) - 대한항공 전세기 3회 취항 日本 北海道 ↔ 무안공항 새벽출발 저녁도착으로 알찬 스케줄 : 무안출발 : 05:00 / 삿포로 출발 : 22:30 8월 09일 3박4일 1,390,000~ (인천출국-무안귀국) 13일 2박3일 1,290,000~ (무안공항 왕복) 16일 3박4일 1,650,000~ (무안공항 왕복) 문의 및 접수 : 호남권 여행사